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범운영 결과 및 발전 방안

유희정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

정부는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2005년도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범운영 실시 결과를 살펴보고, 향후 사업운영 계획 및 평가인증제도의 성공을 위한 발전방안을 집중조명 해본다.

1. 들어가는 말

보육현장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하고자 하는 문제제기와 개선노력이 가속화되면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도입이 중점정책의 하나로 급류를 타고 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는 보육시설의 수가 28천여개소, 보육영유아가 99만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보육현장의 서비스 수준이 점검된 바 없으며, 이에 따라 운영수준이 일정하지 않아 보육수요자들이 일부 보육시설의 경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없다고 지적함에 따라 제도 도입이 제안되었다.

2002년도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에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실시」가 포함되면서 논의가 본격화 되기 시작한 평가인증제도 도입은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도입 기본계획」 발표(2003년)로 구체화 되었다. 2003년도에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모형개발」연구용역이 실시되어 평가인증지표를 포함하여 평가인증 제도 도입 모형이 개발되었다. 연구결과 4단계로 진행되는 운영체계와 21인 이상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 7개 영역 79항목, 21인 미만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 5개 영역 58항목의 2종의 평가인증지표가 개발되었다.

이후 2004년 영유아보육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제도도입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2004년도 10월에는 보육시설평가인증 사무국이 설치되었다. 사무국은 설치당시 3개팀 10명으로 시작되었으며, 2005년도 1,000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하였다. 2006년도 평가인증 업무가 본격화되면서 현재 3개팀 14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6년도에는 총 4,000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이 진행중에 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이란 보육시설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준비된 평가지표 및 지침서에 따라 스스로 보육시설의 운영수준을 평가, 진단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부족한 부분을 정비·보완하여 시설운영을 개선하는 과정이다. 인증통과시에는 국가가 인증서를 부여한다. 이로써 영유아들은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건강하게 양육될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보육수요자인 부모들은 보육시설의 환경·인력·프로그램 등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보육시설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평가인증을 통하여 보육서비스의 효과적인 질적 수준 관리 시스템이 마련될 경우 보육시설들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영유아 대상 보호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이다. 정부 역시 보육현장 운영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육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는 모든 보육시설들이 일정수준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본고에서는 2005년도 보육시설평가인증 시범운영 실시 결과를 살펴보고 2006년도 사업운영 계획, 향후 평가인증의 성공을 위한 문제점 분석과 발전을 위한 제안사항들을 정리해보고자 하였다.

2. 2005년도 시범운영 결과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보육시설평가인증모형(2003)을 보육현장에 시범운영해봄으로써 적용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지표 및 지침서의 현장 수용정도, 운영체계의 적용 가능성이 점검되었으며, 보육시설평가인증을 시작하는 원년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가. 운영체계

2005년도 시범운영은 참여신청, 자체점검, 현장관찰, 인증심의의 4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

■ 참여신청

시범운영에서는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에서 참여신청을 받았으며, 사무국이 소재하고 있는 서울에서 참여설명회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 경우 전국의 보육시설들이 인증사무국이 소재하고 있는 서울로 모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평가인증을 확대 시행할 경우 16개 시도별로 참여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되었다. 특히 보육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되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제안되었다. 시설의 참여신청 접수, 참여설명회 개최, 인증서 수여 및 사후관리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야 한다고 제안되었다.

■ 자체점검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이 교사인 점을 감안하여 평가인증에 어떻게 참여하여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초기 참여설명회에 시설장은 물론 교사의 참여를 촉구하였다. 실제로 일부시설의 경우 시설장이 설명회 참여 후 시설에 돌아가 참여진행과정을 적절하게 설명해 주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 현장관찰

평가인증 과정에서 현장관찰자의 역할은 인증제도 도입의 중요 성공요인이다. 시범운영결과 현장관찰자 준비를 위해서는 관찰실습이 다각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안되어 현장관찰자 교육은 2005년도 2박 3일로 진행되었던 것이 2006년도에는 3박 4일 일정으로 확대, 진행되었다.

■ 인증심의

한편 인증심사시 시설중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인가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시설 등이 충분히 점검되지 못하고 있음이 지적되어 인증통과에 적절하지 못한 사항들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수지표를 설정하여야 할 것이 제안되었다.

나. 평가인증지표

평가인증지표는 2003년도 연구시범에서 개발한 2종의 평가인증지표(21인 이상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 7개영역 79항목, 21인 미만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 5개영역 58항목)를 기초로 하여 영아전담 평가인증지표와 장애아전담 평가인증지표 2종이 추가 개발되어 총 4종이 활용되었다. 그러나 시범운영결과 21인 미만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와 영아전담 평가인증지표가 유사하여 이 둘을 통합하자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보육현장에서는 일부분항에 대한 설명이 포괄적이어서 해석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이 지적되었으나 한편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문항의 내용을 개량화 하는 경우 수량의 근거를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었다.

다. 시설 참여 및 인증 결과

2005년도 시범운영에 참여를 신청한 보육시설은 1,089개소였으나 이중 809개소의 보육시설이 평가인증 1단계 참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중도에 138개소가 탈락하여 최종 인증 심의 대상 보육시설은 671개소이었다. 이중 인증을 통과한 보육시설은 627개소(93.4%)이고, 인증유보 보육시설 31개소(4.6%), 불인증 보육시설 13개소(1.9%)이다. 참여 선정시설 809개소 대비 인증율은 77.5%이다.

현장관찰자는 보육관련 자격을 기준으로 신청자 429명 중 1차, 2차, 3차 교육을 통과한 76명이 최종 선발되어 현장관찰을 실시하였다.

인증심의는 시설이 제출한 자체점검보고서, 현장관찰보고서, 관련 설문조사 결과 등을 기준으로 총 60명의 인증심의위원중 매번 5명으로 구성된 평가인증심의위원회에서 인증을 결정하였다.

인증결과 홍보는 지방자치단체 및 전국의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일간지 홍보, 여성가족부 및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가 실시되었다.

라. 평가 및 발전방안

2005년도 평가인증 시범운영에 대한 효과와 발전을 위한 논의사항 제안은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이 작성한 2005년도 사업평가보고서와 서울시, 인천시, 전북, 경북, 관악구, 성동구의 6개 보육정보센터에서 내부적으로 수집한 시범운영 평가 결과에 기초하였다.

1) 시범운영 참여시설 참여 동기 및 참여 만족도¹⁾

평가인증 시범운영 참여 동기는 서비스 수준향상이 70.7%로 가장 많았고, 원아모집 홍보 차 참여한 시설은 3.3%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많은 시설들이 평가인증을 서비스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 평가인증 시범운영 참여 동기

단위: 개소(%)

서비스 수준향상	객관적 평가받고자	우수성 홍보차	주위시설장 권유로	원아모집 홍보차	기타	합계
790(70.7)	147(13.2)	112(10.0)	14(1.3)	37(3.3)	17(1.5)	1,117(100.0)

평가인증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은 많은 교사들이 부담스럽지만 좋은 기회(78.5%), 교사 전문성 향상 기회(12.5%)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무과중으로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6%로 대다수의 교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평가인증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

단위: 개소(%)

부담스럽지만 좋은기회임	업무과중으로 부담스러움	교사 전문성 향상 기회	기타	합계
877(78.5)	74(6.6)	138(12.4)	28(2.5)	1,117(100.0)

참여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참여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45.3%), 매우 만족(42.5%)으로 87.8%이상의 시설에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매우 불만족(0.7%)하거나 대체로 불만족(1.9%)하다는 비율은 2.6%에 불과하였다.

〈표 3〉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 만족도(N=572)

단위: 개소(%)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평균	표준편차
21인 이상	2(0.3)	10(1.7)	37(6.5)	180(31.5)	150(26.2)	4.2	.77
21인 미만	0(0.0)	1(0.2)	14(2.4)	57(10.0)	74(12.9)	4.4	.69
영아전담	2(0.3)	0(0.0)	3(0.5)	16(2.8)	16(2.8)	4.2	.99
장애아전담	0(0.0)	0(0.0)	1(0.2)	6(1.0)	3(0.5)	4.2	.63
합계	4(0.7)	11(1.9)	55(9.6)	259(45.3)	243(42.5)	4.3	.76

주: 다중응답임.

1)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2006), 2005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내부자료.

평가인증 준비비용의 사용처로는 환경 개·보수가 7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료 구입을 한 비율도 13.9%로 다른 부분에 비하여 높은 편이었다. 반면 급간식의 개선이나, 교사연수에 비용이 들었다는 응답은 1.0%미만으로 낮았다.

평가인증에 참여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비용부담(51.5%)이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조력부족(15.3%), 시간이 부족(5.3%)하여서 어려웠다는 응답도 높았다. 시설유형별로 영아전담보육시설은 조력부족(48.6%)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으며, 장애아 전담은 비용부담(44.4%)이나 시간부족(33.3%)을 가장 큰 이유로 응답하였다.

〈표 4〉 참여하면서 어려웠던 점(N=570)

단위: 개소(%)

구분	비용 부담	교사 비협조	조력 부족	역량 부족	시간 부족	업무량 증가	기타	평균	표준편차
21인 이상	204(35.8)	42(7.4)	44(7.7)	30(5.3)	19(3.3)	30(5.3)	9(1.6)	2.3	1.78
21인 미만	87(15.3)	17(3.0)	23(4.0)	8(1.4)	5(0.9)	6(1.1)	0(0.0)	1.9	1.39
영아전담	0(0.0)	1(2.7)	18(48.6)	15(40.5)	3(8.1)	0(0.0)	0(0.0)	3.5	.69
장애아전담	4(44.4)	0(0.0)	2(22.2)	0(0.0)	3(33.3)	0(0.0)	0(0.0)	2.8	1.85
합계	295(51.8)	60(10.5)	87(15.3)	53(9.3)	30(5.3)	36(6.3)	9(1.6)	2.3	1.68

주: 다중응답임.

2) 보육시설 평가인증의 효과²⁾

① 아이들의 입장에서 좋아진 점

- 환경이 좋아지고 교재교구들이 다양해지고 자유선택활동 시간이 많아졌으며 이에 따라 자유선택활동이 활발해지고 소집단 활동이 많아졌음.
- 상호작용면에서 교사들이 더 세심하게 배려해주게 되었으며 보육교사와 영유아간의 개별적 상호작용 시간이 많아진 효과 있음.
- 흥미영역의 적절한 배치로 영유아의 놀이가 활발해졌음.

2) 경북보육정보센터(2006). 2005년도 보육시설평가인증 참여평가. 내부자료.
 관악구보육정보센터(2005). 평가인증 조력모형 개발을 위한 인식 및 요구조사. 2005년도 연구보고서.
 관악구보육정보센터(2006). 2005년도 보육시설평가인증 참여평가. 내부자료.
 서울시보육정보센터(2006). 2005년도 보육시설평가인증 참여평가. 내부자료.
 성동구보육정보센터(2006). 2005년도 보육시설평가인증 참여평가. 내부자료.
 인천시보육정보센터(2006). 2005년도 보육시설평가인증 참여평가. 내부자료.
 전북보육정보센터(2006). 2005년도 보육시설평가인증 참여평가. 내부자료.
 최대훈(2006). 보육시설평가인증제 참여교사와 비참여교사의 인식비교. 미발표 논문.

② 부모님들의 반응

- 학부모의 어린이집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학부모 자체평가와 부모참여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음.
- 교사의 활동진행을 참관하면서 보육시설의 환경이 좋아진 점과 교육활동의 변화를 인식하고 교사들이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됨으로써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가 증가되었음.
- 평가인증을 받은 것에 대해 많이 축하해주고 부모님들도 자부심을 갖게 되었음.

③ 시설장 입장에서 효과

- 평가인증을 계기로 운영전반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자신의 시설 운영을 다른 시설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바람직하였음.
- 힘은 들었지만 환경이 깨끗해지고 교사들의 사고가 바뀌어서 교재교구 개발이 활발해지고 보육실 영역 구성이 잘 배치되어 영역별 교재교구가 다양해졌음. 또한 보육실 환경이 영유아의 일과 활동에 맞게 구성되어 안정되고 편안한 분위기를 갖게 되었음. 이로써 평가인증 과정을 통하여 어느 정도 질적 수준이 올라가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음.
- 평가인증을 계기로 교사들이 스스로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되었으며, 질적인 측면들을 유지하려는 노력들이 있어, 원장이 일일이 관여하지 않아도 각 반의 잘 돌아가고 있음이 발견됨. 즉 교사들의 적극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자세,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잘 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긍정적이며, 업무분담으로 보육교사들이 소속감과 업무 책임감이 생겼음.
- 일일보육일지기록으로 투약의뢰, 결석 등 반별 상황이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게 되어 일과 운영이 효율화되었음.
- 개별침구를 위생, 청결하게 관리하게 되었으며 영유아 한명한명에게 애착을 가지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음.
- 급간식에서 질 높은 자연식 제공이 증가하였음.
- 가정과의 연계 · 협력이 증가하였음.
- 원아에 대한 체계적인 문서관리를 통해 영유아의 발달상태가 정기적으로 점검되기 시작하였음.

- 학부모도 평가인증제도에 관심 갖고 도와주었고, 원아를 중심으로 하는 교사와의 대화가 증가하였음.
- 평가인증 사무국 홈페이지와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특히 일간지에 홍보가 되어서 인지 어린이집에 입학문의 전화가 많이 옴.

④ 보육교사 입장에서의 효과

- 정비된 교육 환경 속에서 유아들과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고, 여러 상황에 대하여 준비된 자세로 임할 수 있게 되어 전문성이 향상되었음.
- 자유선택활동의 개념을 재인지 한 후 활동을 계획하게 되고 유아의 놀이에 교사 참여 활동이 많아졌음.
- 보육교사의 역할에 있어서 아동과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대화를 시도하고 교사들 간의 상호작용과 상호장학이 활발해졌음.
- 시설운영 전반의 흐름과 서류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는 능력이 향상되고 보육교사로서 자부심과 어린이집에 대한 자부심이 형성되었음.
- 이로써 보육교사들이 자기 점검을 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실천기술을 재구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한 단계 발전된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음.

3) 평가인증의 발전을 위한 개선사항

■ 평가인증지표

- 평가인증절차 및 평가인증지표 이해에서 어려움이 있었음.
- 관리 영역이 너무 세분화 된 점,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는 점에서는 서류 간략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운영체계

- 조력에서 대부분의 시설(특히 민간·가정시설)에서는 해당 시설에 방문하여 직접적인 조력을 해주기를 희망하고 있음.
- 그러나 조력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견학시설의 환경, 견학시설 교사들의 의견이

정답으로 오인되는 경우 있음. 인증통과 시설중 우수시설을 선발하여 견학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현장 관찰자가 시설 유형(가정, 직장)이나 특성(영아, 장애아 등), 규모(아동수, 건물 형태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각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평가시 관찰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배제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할 것임.
- 평가인증에 통과되는 기준을 좀더 상향 조정하거나, 통과한 시설을 Level에 따라 구분하여야 할 것임.

■ 사후관리

- 평가인증 통과를 위한 인증절차가 아니라, 진정한 보육 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평가 방법의 다양화가 모색되어야 할 것임.
- 평가인증을 받을 때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게 지속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임. 예를 들면 화장실에 페이퍼타올을 이제는 쓰지 않는다든지, 칫솔 소독기, 컵소독기 등도 한쪽에 치워버린다든지 그런 예는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되어야 할 것임.
- 환경에서 뿐만 아니라 보육과정 운영에서 특별활동을 다시 시작한다든지, 자유놀이를 다시 줄인다든지 하는 경우임. 따라서 인증 후에도 사후 관리나 장학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사후관리에서는 부모와 유아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교사의 입장도 반드시 함께 고려되기 바람.
-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지만 평가인증관련 재교육을 계속적으로 실시하여 인증의 감각을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정책지원

- 실질적인 인증참여업무를 담당하는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제도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선행 교육 실시가 요구됨. 양성과정에 있는 예비교사들의 교육과 재직 교사들의 보수교육에 평가인증 관련 교육내용을 삽입하여 이들이 평가인증에 대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함. 나아가 보육시설의 학부모도 평가인증과

정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임.

- 2005년도 인증통과시설들은 정부의 인센티브를 기대하였으나 인센티브가 즉각적으로 주어지지 않자 일부 시설들에서 반발이 있기도 하였음. 인증과정에서 많은 수의 시설장들은 시설설비의 개보수, 보육실 환경구성, 교재교구 정비 등에 비용을 소비하였음. 따라서 인증참여과정에서 소요되는 일정 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혹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인증을 통과하는 시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시설 홍보, 시설 개보수비, 교사 수당 등)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임.
- 특히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보육교사들이 인증 참여 시설을 기피하는 일이 발생함. 따라서 인증 참여와 개선 활동에 동기 부여가 필요하며, 교사처우개선비 등 지원이 요구됨.
- 혹은 평가인증을 대비하면서 자체점검 기간에 교사 업무가 증가하면서 보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음. 이것은 평가인증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다양한 인력(대체교사, 공공근로, 실습생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이 요구됨.
- 시범운영 과정에서는 보육시설들은 물론 보육담당 공무원들에게도 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목적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한 예들이 나타나 홍보의 강화가 촉구됨.
- 처음 시작하는 정책이라 사전에 필요한 준비 자료와 정보가 너무 없었고, 준비기간이 짧아 평가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음. 필요한 경우 자체점검 기간을 충분히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임.

3. 2006년도 운영계획³⁾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2006년도부터는 평가인증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며, 2006년도 사업대상 목표시설수는 4,000개소로 소요기간은 1개 시설당 9~10개월이 소요된다.

가. 2006년도 운영체계

2006년도 운영체계는 2005년도 시범운영에서 실시되었던 운영체계 중 일부가 수정되

3)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2006). 2006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침서.

어 운영되고 있으며, [그림 1]과 같이 인증신청, 자체점검, 현장관찰, 인증결정의 4단계로 진행된다.



[그림 1] 평가인증 운영체계

■ 1단계: 참여신청

- 참여자격: 인가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보육시설. 보육시설의 자발적 참여
- 신청방법: 평가인증사무국 홈페이지(<http://www.kcac21.or.kr>)를 통하여 접수
- 선정방법: 시·군·구 및 여성가족부에서 최종 선정
- 참여 설명회: 선정시설은 지방자치단체와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에서 개최하는 평가인증 참여설명회에 시설장과 교사 등 1인 이상이 참석. 16개 시도에서 개최

■ 2단계: 자체점검

- 자체점검위원회: 참여시설은 학부모, 시설장, 보육교사로 구성된 자체점검위원회를 7인 이내로 구성하여 지표에 따른 시설내 자체점검 실시. 자체점검이 끝나면 자체점

검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사무국에 제출. 자체점검시 희망하는 경우 전국의 26개 정보센타를 통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음.

- 자체점검 기간: 자체 점검 기간은 4개월이며 사정에 따라 1개월 연장 가능

■ 3단계: 현장관찰

- 현장관찰자 모집, 교육, 선정은 인증사무국에서 실시
- 자체점검을 마친 보육시설에 현장관찰자를 파견, 현장관찰을 실시. 현장관찰자는 시설 당 2인이 하루동안 파견되며 관찰이 끝나면 현장관찰 결과보고서를 인증사무국에 제출
- 현장관찰자 교육: 3박 4일 숙박교육

■ 4단계: 인증심의

- 인증심의: 보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인증심의위원회에서 자체점검보고서와 현장관찰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심의가 이루어지며, 인증결과는 다음의 3가지로 구분
 - ① 인 증: 총점 및 모든 영역에서 기준 점수를 통과한 경우 인증
 - ② 인증유보: 총점이 기준 점수를 통과하였으나, 영역별 점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인증유보
 - 21인 이상,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은 7개영역 중 2개 영역 이하
 - 21인 미만 보육시설은 5개 영역 중 1개 영역 이하가 기준 점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 ③ 불 인 증: 총점이 기준 점수를 통과하지 못했거나, 총점은 기준점수를 통과하였으나 다음의 경우 불인증
 - 21인이상,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은 7개 영역 중 3개 영역 이상
 - 21인 미만 보육시설은 5개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이 기준점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 인증결정: 인증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현장관찰 결과보고서, 부모설문지 결과, 행정처분 자료 등을 기초로 인증 결정
- 인증서 부여: 인증에 통과된 시설은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서를 수여받게 되며 여성가족부 및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 홈페이지, 전국 보육정보센타 등에서 홍보. 인증유보 및 불인증 시설은 개별 통지. 이후 인증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시설은 결과 통지 수락 후 15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사후 관리

- 연차보고서 작성: 인증통과 보육시설은 매년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차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나. 2006년도 평가인증지표

- 2006년도 평가인증지표는 2005년도 시범운영 결과에 준하여 수정되었음. 그 결과 영아전담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는 21인 이상 보육시설용 지표와 21인 미만 보육시설용 지표 내용에 통합되었으며, 따라서 2006년도부터는 3종의 평가인증지표로 운영됨. 3종은 21인 이상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7개 영역 80항목), 21인 미만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5개 영역 60항목),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7개 영역 85항목)임.
- 2006년도부터는 지표중 필수항목이 지정되어 ① 보육실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준수, ② 재정관리의 투명한 운영, ③ 안전사고에 대한 보육시설의 책임 등이 필수항목으로 지정되어 운영됨.
- 또한 인증사무국에서는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난 바를 반영하여 평가인증항목 문항의 내용과 설명에 대한 일부분을 수정하였음.

4. 정부의 보육시설평가인증 추진 및 활용계획

여성가족부가 ‘새싹플랜: 제 1차(2006~2010) 중장기 보육계획안(2006. 6)’에서 밝히고 있는 평가인증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보육시설평가인증시스템 구축 완료
- 2006년부터 평가인증을 단계적으로 전면 확대하여 2008년까지 모든 보육시설이 1차적으로 평가인증에 참여하도록 함. 이를 위해 매년 10,000개소씩 실시 예정
- 이후 2009년도부터는 모든 보육시설이 매 3년마다 1회씩 평가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평가인증의 원활한 확대와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중앙정부: 자체평가, 현장관찰 평가 및 인증심의 담당

- 지방정부: 참여시설 선정
- 평가인증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가 서비스 질 관리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 지원과 연계
- 평가인증 통과시설에 대한 홍보 강화
- 지역별 평가인증 우수 시설을 모범시설로 지정하여 활용

5. 맺는 말

보육정책은 보육재정의 확대지원과 이렇게 지원된 재정이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 방안으로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가사항의 준수,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및 전문성 향상, 올바른 보육과정의 정비 및 운영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지도방법으로 보육시설 평가인증 제도 도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보육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을 점검하게 되는 보육시설평가인증 참여는 결코 손쉬운 과정만은 아니다. 우선 정책변화에 대하여 이해하고 수용하여야 하는 심리적 부담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요비용의 부담, 업무의 과중 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인증과정을 통과한 시설들은 보육교사와 시설장 모두 자신들의 시설운영과 보육활동 운영을 돌이켜보고 점검해볼 수 있어서 개선과 발전이 있었다고 평가된다. 시설환경과 운영체계가 정비되었고, 보육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아동중심의 자유선택 활동시간이 증가한 점, 이로써 영유아들은 개선된 보육환경에서 더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되었고, 보육교사들은 전문성이 향상되었다고 평가된다.

보육시설평가인증이 보육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보았던 우리들은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가 조심스럽게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보고 있다. 평가인증참여시설들이 문제제기하였던 바처럼 시범운영을 통하여 나타난 제반 사항들에 대하여 의견을 모아 보완하여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가 보육의 발전에 원동력이 되기를 희망한다.